

〈주요개념〉: 공간, 성적소수자, 퀴어, LGBT, 지역운동, 정치

##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현대 한국의 성적소수자와 공간\*\*

강오름\*\*\*

### 1.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진지도 2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급격한 변화를 겪은 듯하다. ‘호모’나 ‘동성연애자’와 같은 표현으로 호명되고 에이즈 전파의 주범 정도로 인식되던 과거와 비교하

---

\*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는 4개 단어의 앞머리를 따서 만든 것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통칭할 때 쓰는 약어이다.

“LGBT”, 성적소수자사전

[http://ks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http://ks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2015년 1월 11일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2-2008

※ 본 인용 표기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음 (이하 동일).

\*\* 본고는 연구자의 석사논문(강오름 2013)을 축약,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 전공

면 ‘여자보다 예쁜’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섬세하고 세련된 취향을 지닌 게이 남성의 이미지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오늘날에, 성적소수자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일견 ‘정치적으로 올바른’ 상식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즉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에 대한 비판에서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출발한다.<sup>1)</sup> 미디어라는 공간에서 성적소수자는 ‘세련된 게이’와 같은 독특한 취향의 소유자 및 그로 인한 새로운 상품의 창출자, 혹은 일종의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배려’되어야 할 대상으로 투영되고 있다. 이러한 배려와 관용은 그들을 특정 생활양식을 선택한 소비자이자 사적인 공간에 속한 존재로 간주하고 나아가 격리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서동진 2006). 이성애가 주류 규범으로 확고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공간은 가치중립적인 공간으로 간주되며, 이성애의 우위성 및 비이성애에 대한 배제와 선별의 권력은 암암리에 양해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게이 남성의 이미지가 성적소수자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표상될 때 여성 성적소수자의 존재는 더욱 희미해진다. 즉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디어에서 생산된 이미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대다수의 성적소수자의 삶은 ‘인정’의 범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는 ‘성적소수자’라는 주제에 접근할 때

---

1) 이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테일러는 서구에서 18세기 들어 계급이라는 위계질서가 붕괴하면서 ‘개별화된 정체성’이 부상되었지만 이에 근간을 둔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가 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과 집단이 지니고 있는 차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Taylor 1994).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발현에는 타자와의 대화(dialogue), 즉 주류사회와 같은 타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오승은 2012: 7). 이러한 ‘대화’에서 인정하는 주체와 인정되는 대상 간의 권력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테일러는 간과했다. “흑인 혹은 게이가 되는 적절한 방법이 존재하며, 충족되어야 할 기대와 요구가 존재해야” 하듯, 특정 문화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형성할 뿐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인정’의 과정에서 고정된 대본(script)을 강요할 수 있다는 비판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Appiah 1994: 162-163).

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이미지 혹은 사적이고도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전체 사회의 맥락에서 성적소수자의 정체성이 지니고 있는 의미, 그러한 정체성을 지닌 이들의 실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공간’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탐구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간적 차원은 언제나 인류학자들에게 친숙한 개념이었으며, 자연경관 혹은 일상생활 내의 물질적 조건 등 공간적 차원에 관한 분석은 종종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인류학자들은 공간을 단순한 배경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문화의 공간적 차원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관점을 옮겨가고 있으며, 모든 행위가 공간 속에 위치해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은 새로운 의미를 띄게 되었다(Lawrence-zúñiga and Low 2003). 무엇보다도, 특정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과 타인에 대한 범주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성적소수자의 정체성은 그러한 섹슈얼리티가 형성되기 위하여 특정 공간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공간적이다(Mitchell 2000; 발렌타인 2009: 15). 레즈비언과 게이 정체성의 수행(performance)을 통하여 이성애를 당연시하는 공간은 레즈비언과 게이 공간으로 (재)생산되어 소수자적 성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의 성적소수자의 위치를 알고자 할 때,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수행하고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수행으로 인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공간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자는 여성 성적소수자들의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적소수자라는 범주 내에서 젠더로 인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공간 점유의 문제이다. 여성 성적소수자는 비윤리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간주된다는 점, 또한 의존적이고 연약하며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공적 공간의 이용에서 배제된다(맥도웰 2010). 이렇듯 이중의 제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여성 성적소수자들이 공간을 점유하고자하는 능동적인 실천을 살피는 것은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대

한 한국 사회의 감수성의 한 단면을 포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마포구에서의 성적소수자 지역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성적소수자의 관계 및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성적소수자의 능동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게이 상업지구가 최대 규모로 형성된 종로와 이태원과 달리 마포의 경우 레즈비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들은 가시적인 경관을 형성하지 않지만, 성적소수자들의 주거지로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마포가 성적소수자들의 정치적인 장으로 구성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성적소수자가 공간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마포에서의 성적소수자 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성적소수자와 공간의 관계의 역사를 추적하고, 둘째, 어떻게 마포구라는 특정 지역이 성적소수자들을 흡인하는지 분석하고, 셋째, 행위자로서 성적소수자들이 어떻게 마포 지역에 귀여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적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현대의 서구에 존재하고 있는 ‘성’이라는 범주와 그에 대한 가정들이 자연스럽고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성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발전시켰다. 푸코는 『성의 역사』(2004)에서 성생활(sexualité)의 규제로 인해 성(sexe)의 범주가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남색(sodomy)과 같은 다양한 성행위가 있었으나, 근대의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병리학적 범주는 동성애를 성관계의 한 가지 유형으로보다는 오히려 성적 감성의 어떤 특성으로서 성립하였다. 성은 어떠한 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로서 발명된 것이며, 규율적인 관행을

통해 일관된 성적 정체성으로 생산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구성을 통해 섹스는 젠더를 규율하는 원인이자 자연적인 성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은폐된다. 섹스라는 물화된 범주에 의하면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만이 존재하며, 이들은 이성애를 욕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율적인 섹슈얼리티에 속하지 않는 양성구유자, 이성애를 욕망하지 않는 자는 성도착자, 괴물, 비정상인으로 취급된다. 푸코는 이성애에 바탕한 섹스가 사실은 자연의 질서가 아니며, 권력과 지식과 욕망의 미시정치학에 의하여 성의 범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푸코에게 권력은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개별 주체의 선택 또는 결정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차별적인 힘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권력의 작용에는 이미 저항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권력관계의 망이 기구와 제도에 스며들면서도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조밀한 조직을 형성하듯, 저항지점들의 이동은 사회 계층과 개인의 통일성을 꿰뚫는다. 푸코는 이러한 저항지점들의 전략적 코드화가 혁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Ibid.: 104-106). 19세기 후반부터 ‘동성애자’라는 용어의 확산은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한 권력의 작용이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미국에서의 ‘게이(gay)’라는 자기묘사법의 광범위한 등장은 정치화된 성적 정체성의 대두를 나타낸 것이었다(윅스 1994: 110-112). 이러한 20세기 이후의 특유한 성적 하위문화들이나 공동체들의 등장은 범주화와 자기 낙인(self-labeling) 즉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통제와 제한 그리고 금지를 날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안과 안정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였다(Plummer 1980: 29). 1960년대 후반 ‘게이 해방주의자들’이 정치 세력화하였으며, 1970-80년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의 대중적 게이 및 레즈비언 운동의 등장을 추동한 공동체들이 등장하였다. 이후

지역적 조건이 허락되는 곳이면 어떤 나라에서도 이를 따라 다양한 게 이해방운동이 출현하게 되었다(웁스 1994: 113).

그렇다면 특정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부르디외(Bourdieu)는 실천(practice)이 공간에 문화적 지식과 행위를 주입하고 강화하는 상호의존적인 방법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공간은 실천과 떨어져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으며, 체계의 생산적이고 구조화하는 기질인 아비투스(habitus)는 공간을 구성하거나 행위자의 움직임에 의해 공간 내에서 구성된다(Bourdieu 1977: 214, Lawrence-zúñiga and Low 2003: 10 재인용). 부르디외의 이론에서 사회적 실천은 공간적 의미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특정 정체성은 공간에 고정된다기보다는 행위자들이 그들의 두서없는 지식과 전략적 의도를 공간적 의미의 해석으로 가져올 때 발동된다. 즉 공간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의해 물리적 환경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장소로 변환”(박지환 2005)된다.

공간 내에서의 성적 정체성의 수행(performance)을 설명하기 위하여 버틀러(Butler)의 논의를 끌어들이는 발렌타인(Valentine)의 연구는 행위자의 움직임에 의하여 공간이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버틀러는 젠더를, 그리고 암묵적으로 다른 정체성도 수행적인(performative) 것으로 이론화하면서, 이를 엄격하고 통제된 체제 내에서 형성된 반복적인 행위의 집합이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질, 즉 자연적 존재의 외형을 응고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버틀러 2008). 발렌타인은 이러한 시각이 사회적 정체성을 영속적인 투쟁의 대상이자 불안정한 범주로 생각할 수 있게 했고, 이러한 수행과 투쟁이 일상공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했다고 보았다(발렌타인 2009: 14-15). 이러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연구에서 레즈비언과 게이는 공적공간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거리가 어떻게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이성애적 공간으로 생산되었는가를 폭로한다(Ibid.: 16).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퀴어<sup>2)</sup> 동네’ 마포의 경우 성적소수자, 그 중에서도 레즈비언 여성들이 마포라는 특정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실천이 의식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지 않고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례이다. 이들의 의식적인 실천이 개입하지 않고도 마포는 특정 정체성을 지닌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 및 생활양식과 조응하는 장소가 되었다. 즉 아비투스<sup>3)</sup>가 행위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공간 내에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결과물, 즉 마포의 퀴어 네트워크는 일상이 실천되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저항 지점들의 전략적 코드화”를 가능케 한다.

###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2011년 7월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마포구와 성적소수자의 관계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하게 된 후, 11월 마포구의 성적소수자 주민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에 가입하였고 12월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서 연구대상으로서의 마포 지역을 인지하게 되었다. 2011년 7월 연구자는 지인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민중의 집’에 방문할 일이 있었다. 홍대 앞에서 마포09번 마을버스에 탑승했던 연구자는 버스 내부에 있는 광고를 통해 마레연을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도 망원시장에서 만났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

2) 퀴어(queer)는 본래 ‘이상한’ 혹은 ‘기묘한’이라는 뜻으로 성적소수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강했으나 1980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에서 새로운 경향이 생기며 오히려 당당한 의미로 바뀌었다. 성차별과 억압을 생산하는 주류사회의 ‘이성애중심주의’를 배격하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퀴어’임을 호명한 것이다. 연구자와 만났던 사람들 역시 일상적으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퀴어’를 사용했다.

“퀴어”, 성적소수자사진

[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2013년 3월 13일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2-2004

꼭 인사 나눠요”라는 광고를 보고서 연구자는 은밀히 마포 지역에 성적 소수자 모임이 있음을 알리는 광고 내용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후 광고 귀퉁이에 적힌 마레연의 인터넷 카페 주소를 찾아가 가입하고 매월 열리는 모임에 참여하는 등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매달 모임을 나가며 연구자는 ‘퀴어 동네’로서의 마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찍이 신촌 및 홍대 지역을 중심으로 레즈비언 바 등이 입점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단순히 관련 업소들의 존재만으로 이 지역을 의미 있는 연구 대상으로 정하기는 어려웠다. 한시적인 만남의 장에서 의미 있는 현상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무엇보다도 게이 남성들의 종로와 이태원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바와 클럽 등이 전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퀴어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일상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소로서 점유한다는 점에서 마포 지역은 ‘퀴어 동네’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자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당번’에 속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마레연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마포구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연구자는 처음에는 일상적으로 퀴어 주민들과 만나기 힘들었으나, 당번을 맡게 된 이후 다른 당번들을 비롯한 마레연의 회원들과의 연락을 통해 마레연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사건에 대하여 보다 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연구자는 마레연의 정기적인 모임인 ‘퀴어 밥상’과 모임 이전에 당번들끼리 밥상 메뉴와 그날의 행사 등을 논의하는 당번 회의, 그리고 마포구청과 갈등을 빚었을 때 소집되었던 퀴어 주민 회의 등 마포 지역에서 있었던 모임들에 참여하였다. 특히 2012년 하반기에 예

---

3) 본 논문에 포함된 내용은 2013년 4월까지 있었던 일들이다.



기치 않게 일어났던 마레연과 마포구청의 갈등에서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SNS로 알리고 다른 회원들 및 활동기들과 마포구청 앞에 항의 방문을 가는 등 참여관찰을 함에 있어 ‘참여’에 더욱 방점을 찍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기록하는 방식을 주로 택했으나, 사람들 간의 대화는 가능한 한 틈틈이 받아 적기 위해 노력했다.

참여관찰 및 참여 도중에 비공식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위해서 공식적인 인터뷰 또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2013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총 9명의 정보제공자들과 심층적인 면담을 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었고 모두 녹음기를 사용하여 이후 녹취하였다.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마레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며, 레즈비언 혹은 바이섹슈얼 여성들이다.<sup>4)</sup> 정보제공자들의 연령은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에 분포해 있으며, 직업은 시민단체 활동가, 회사원, 공인중개사, 대학원생 등이었다. 30대 초 중반의 면담 대상자들은 당번들을 비롯하여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서 결정하였다. 특히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들의 연령대가 여기에 분포해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다. 40대인 이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시절에 20대를 겪었으며 오늘날까지의 변화를 삶 속에서 실감해왔다는 점에서 선택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면담했던 이들과 참여관찰 도중 대화를 나눈 이들을 언급할 때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과거의 성적소수자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위해 한국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에 자료 열람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았다. 동성애자 전문잡지 <버디>를 비

---

4) 남성회원들도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들의 성별이 여성에 한정된 이유는 마레연의 초기 결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활동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롯한 퀴어락의 자료들은 연구자가 직접 겪지 못한 과거의 퀴어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 및 내부의 담론, 그리고 한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공적인 담론이 출현했던 무렵의 분위기를 알아내는 데 유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한국에서의 공간과 소수적인 성적 지향성의 관계에 대한 사례들을 살필 수 있었다.

#### 4. 공간과 퀴어 문화

##### 1) 도시 내 게이 계토의 형성: 1990년대 이전

한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필두로 퀴어 담론이 논의되게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지만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는 그 이전에도 도시 공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존재해왔다.<sup>5)</sup> 1950년대의 서울 명동의 극장들은 해방 이후 게이 남성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었던 최초의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다. 도심지라는 특성 때문에 명동은 “오다가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들렀던” 곳이었다. 당시의 게이 극장들은 명동의 백화점을 끼고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외국의 상품들이 국내에 조달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상인들, 그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의 한국 방문이 백화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의 신당동 또한 극장 및 최초의 게이 바들이 들어서면서 초기 게이 계토로 기억되는 곳이다. 한때 을지로 인 쇄소 골목길이 20여 개의 게이 바로 점령되다시피 하였으나, 1970년대

---

5) 주로 퀴어 정체성은 그것이 형성되기 위해 특정한 공간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공간적인데(발렌타인 2009: 15), 이러한 사회적·성적 자유의 공간으로 간주되어온 곳은 도시 공간이다(Johnston and Longhurst 2010: 80). 예를 들면 역사학자 알드리치(Aldrich)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도시라는 환경에서 표출되기 쉬웠다고 주장한다. 그는 작은 마을보다도 파트너 선택의 폭이 더욱 크며, 익명성을 제공하는 군중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시로 하여금 동성애자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였다고 한다(Aldrich 2004).

이후 종로에 파고다극장을 중심으로 여러 게이 바들이 개업하기 시작하면서 낙원상가 일대는 게이 남성들에게 장소적 중요성을 지닌 곳이 되었으며, 그 위상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끊임 없이 흘러들어오고 군중에 의하여 익명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 건물들의 장막과 골목길이 제공하는 은신처로서의 도시는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주며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다.<sup>6)</sup>

비록 확연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그들만의 장소의 명맥을 유지해온 게이 남성들과는 달리, 레즈비언 여성들의 경우는 특정한 지역을 그들만의 장소로 발달시키기 어려웠다. 레즈비언 여성들 또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고 하나, 이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전설로 남은” 채로 있다. 1965년에 조직된 <여운회>는 회원의 90%가 택시 운전기사여서 ‘여자운전자모임’이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이름을 하고 있다. 레즈비언 모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암암리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번 모임에 못 모여도 1200~1300명씩 모였다고 한다. 법적 사회단체로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1980년대 중반에 회장 선출로 인한 회원 간의 분쟁, 회원 간의 빈부격차, 사회의식의 차이 등을 이유로 유아무야 해체되었으며, 이후에는 모임의 성격을 떠나 삼삼오오 친분 관계로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1970년대의 명동에 ‘샤넬’이라는 여성전용 다방이 있었는데, 여기에 많은 레즈비언들이 모였다고 한다. ‘샤넬’은 대마초 적발로 2년 만에 폐업을 했으나,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다른 곳에 아지트를 마련하거나 직접 술집을 열기도 했다. 이렇게 암암리에 형성되었던 커뮤니티는 1980년대에 들어 명동이 재개발되면서 해체했다고 전해진다(이해솔 1999; 한채운 2011).

이러한 차이는 이전부터 게이와 레즈비언에게 공간을 점유할 수 있

---

6) <버디> 3호(1998년 5월).

는 권력이 각기 다르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동성애자라는 점에서 소수자의 성격을 공유하지만, 동성애자이기 전에 각기 남성과 여성이며, 그로 인해서 각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인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적 공간은 남성의 영역으로, 사적 공간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됨으로써, 즉 ‘공적 공간의 남성화’(로즈 2011)로 인하여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도시 공간에 대한 권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안숙영 2012: 158).<sup>7)</sup> 남성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 자신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는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그녀에게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해 기존에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거나 참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게다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가정이라는 장소 내에서 재생산적 기능에 충실했을 때 ‘어머니’로서 존중되었을 뿐이다(이현재 2008: 7). 국가가 적법한 것으로 제시하는 이성애적 가족의 틀 바깥에서 여성은 대개 무성적인 존재로 여겨졌기에 사적 영역을 벗어나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할 기회가 더욱 차단되었다. 더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선입관은 퀴어 여성의 존재를 철저히 비가시화 한다. 이러한 시선은 여성 퀴어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여, ‘여성’ 퀴어에 대한 담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이들을 고립시킨다.

7) 1970년대 명동의 ‘샤넬’을 비롯한 여성전용 다방들의 경우 당시 명동에서 위세를 떨치던 조지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업소도 있었는데, 이들은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옷차림과 행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쫓아내는 등 종종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웹진 <레인보우링> 제2호(2009년 7월 28일)  
<http://rainbowring.tistory.com/35>

## 2) 통신매체의 발달과 커뮤니티 확장: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PC통신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출현은 퀴어 커뮤니티의 지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PC통신을 즐기던 젊은 게이 남성들은 종로 대신에 보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이태원에서 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으며, 이태원은 점차 새로운 게이 계토로 알려지기 시작했다(조성배 2003: 69). 종로 낙원동 일대의 경우 파고다극장의 폐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얻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인하여 “장소 형성의 재강화”가 발생하였다(이서진 2006: 85).

그러나 무엇보다도 PC통신이 퀴어 커뮤니티에 끼친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 여성은 성적소수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금기시되는데다가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그 당시에는 PC통신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옛날에는 잘못되면 어쩌나, 그게 훨씬 더 강했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을까, 전혀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지 않았으니까...L(레즈비언)이니 이런 말 자체를 몰랐던 때였으니까요”(최동미/여/43).

이런 때에 PC통신은 레즈비언들에게 해방구와도 같았다. 특히 페미니스트 모임에서 생산되는 레즈비어니즘, 성정치, 퀴어 이론 등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도 전달되어 공유 및 학습되기도 하였다. 당시 성정치 및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들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했으며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과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으나, 동호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PC통신을 통해서 이러한 이론과 논쟁들을 접할 수 있었다(한채운 2011: 108). 여성이라는 위치로 인해 레즈비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남성 퀴어보다도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논의할 부분이 많았다. PC통신에서의 만남은 교제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파편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각종 퀴어 문화의 생산 및 이후의 정치적인 움직임의 초석으로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PC통신의 퀴어 동호회에서 만났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인권운동도 하고, 거기서 퀴어문화축제나 이런 것도 그때 통신사마다 있던 모임들에서 연합이 있기도 하고 뭐 같이 집회도 나가고”(서유경/여/36) 하는 과정을 통해 퀴어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감을 갖고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PC통신 동호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오프라인의 인권단체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늘날 인권운동 내에서 잘 알려진 활동가가 된 이도 있다(양승연/여/43).

성 담론의 확산 및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시작,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여성 퀴어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 이들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6년 5월 10일 마포구에 국내 최초로 레즈비언 전용 바를 표방한 ‘레스보스’가 개업하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PC통신 3개 동성애자 모임의 첫 레즈비언 연합 정모가 열리기도 했다. 최초의 레즈비언 바가 개업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후에도 마포구는 레즈비언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후 그해 7월에는 이태원에 두 번째 레즈비언 바인 ‘라펠’이, 1997년 신촌에 ‘쇼너’와 ‘라브리스’가 개업하여 레즈비언 바는 총 4곳으로 늘었다. 이러한 바들은 메뉴판에 음료 값의 일부를 레즈비언 인권운동 단체의 후원금으로 기부할 것을 명시해놓거나 각종 퀴어 관련 행사와 공연, 결혼식 장소로 활용되는 등 레즈비언 문화 및 인권 운동의 흐름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sup>8)</sup>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인터넷 전용선과 컴퓨터의 보급률이 높아

---

8) <버디> 2호(1998년 4월).

지고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상공간에서 모임  
을 만드는 일은 더욱 쉬워졌다. 많은 이들이 보다 저렴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퀴어 커뮤니티의 양적인 성장에  
기여했다. 또한 점차 종로, 이태원, 신촌 및 홍대 지역과 같은 ‘거점 지  
역’이 아닌 지역들에 드문드문 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 개업하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  
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적인 친목 모임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며, 자신  
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동네’에서 보다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설령 그 만남이 지속적인 것이  
되어서 커뮤니티의 공간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다 사적이  
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교감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공  
하는 커뮤니티로부터 그리고 공적인 삶으로부터 후퇴”(이송희일 1999,  
조미나 2001: 36 재인용)를 암시하는 것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지  
역 소모임의 증가가 한국 사회의 맥락 내에서 퀴어 문화가 보다 가시성  
을 띠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었다. 인터넷상에서 ‘그쪽 일대에  
사람들이 있다더라, 거기에도 레즈비언 바가 있대’ 하는 말들이 나오면  
서 알게 되는 것은 퀴어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린 어디에나 다 살고 있다”(양승연/여/43)는 것이다. 따라서 퀴어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퀴어 정체성을 발현할 장소로 활용할 가능성,  
특히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특정 지역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가능성  
은 더욱 축소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소비 공간으로서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케이 게토’를 넘어서 보다 퀴어  
의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 3) 지역에 대해 생각하기

“보면은 다, 미국도 그렇고 LGBT 거리가 도시마다 형성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 좀 궁금하고”(조운주/여/36). 〈퀴어 애즈 포크 Queer as Folk〉와 〈엘 워드 L Word〉와 같은 미국 드라마에 등장한 퀴어들의 삶은 한국의 퀴어들로 하여금 한국에도 퀴어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대하여 상상하게 했다. 그러나 퀴어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발전되어왔던 지역공동체 운동과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이 연관되는 지점이 있어야 했다. 그것은 ‘지역운동’ 내지는 ‘지역단위’라는 말들이 대중들 간에 점차 유포되면서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지역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나오면서부터였다.

한국에서 지역 기반의 운동, 특히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운동은 1960년대 말, 도시 빈민의 거주지인 ‘달동네’를 많은 사회운동가·종교인·예술가들이 도시공동체운동의 근거지로 삼아 다양한 공동체적 실험들을 시도한 것에서 시작했다. 또한 재개발사업 및 강제 철거에 대항한 도시 빈민들의 저항운동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연결되기도 하였다(정규호 2012: 13-15). 민주화운동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동과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자활공동체 운동이 대두되었다. 비록 지역 해체 및 운영의 미숙 등의 요인으로 실패하였으나, 몇몇 지역에서는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환경, 교육, 정치 시안과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지역자치운동이 활발해지는 사례도 생겨났다(박인권·이선영 2012: 24-25). 그러나 국가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시민사회에 반응하여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부응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사회경제적인 안전망이 확보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대항으로써 고용과 복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시공동체가 활용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운동은 국가의 관료체계나 시장의 자유경제체제와 다른 가치로 작동하는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했다(정규호 2012: 16). 인권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역시 점차 정부와의 협력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일상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생했다.

또한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던 시기는 한국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때이다. 2007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하여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성적지향의 문제를 성별이나 장애와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적지향을 포함해 7개의 항목이 삭제된 채로 법제처 심의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조장법’이라고 지칭하며 삭제된 7개 조항과 구제조치에 대한 복원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때 33개 성적소수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과 성적소수자 혐오 및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을 꾸려 활동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겪는 가운데 각 단체들이 소수자가 겪는 차별이 모두의 문제이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을 인식하고 연대를 극적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전의 협의체들은 성별, 정체성, 운동 방식 등의 차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여 2년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그러나 <긴급공동행동>을 이어받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08년 1월 결의되어 5월 공식 발족하여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 18대 총선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동행동에서 싹트기 시작한 성적소수자의 정치세력화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긴급공동행동>에서 활동했던 최현숙의

국회의원 출마가 그것이다. “이혼한 레즈비언 여성”임을 커밍아웃한 최현숙은 소수자를 대변하는 진보신당의 “상징성 있는 후보”로서 ‘정치 1번지’ 종로구에 출마하게 되었다. 종로가 게이들의 지역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레즈비언 후보 최현숙이 지닌 상징성에 힘을 더했다. 최현숙 선본의 선거운동은 처음으로 성적소수자가 선거 유세라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며 정치의 주체로 서는 경험이었던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지속될 성적소수자의 정치세력화 운동의 양분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녔지만, 다른 한편 직전의 투쟁에서 지녔던 고민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한테 종로는 게이들의 게토인데, 그건 사실 우리 생각이고 종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종로에 분명 많은 게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게이들이 다 놀러 나온 거라서 여기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유권자로서는 참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양승연/여/43).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유권자’라는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4구역 남일당 화재사건 또한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한 사건이다. “용산을 보면서…도시개발이라는 논리 하에서 그 지역에서 뿌리내린 삶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볼 때, 그럼 우리처럼 지역색이 강한 집단이 없는데…게이들 사이에서 종로가 재개발되었을 때, 낙원상가가 재개발되었을 때 이것이 게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양승연/여/43). 공권력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무력하게 뿌리 뽑힐 수 있다는 것은 성적소수자들에게는 더욱 각별하게 다가왔다. 성적소수자의 커뮤니티는 과거로부터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더라’라는 소문을 통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고, 비록 인터넷과 같은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만남의 장이 다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종로·이태원·홍

대와 같은 특정 지역들은 여전히 가장 많은 이들이 모이고 각종 인권단체 활동도 이루어지는 등 그 자체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적소수자들에게서 그들만의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 즉 커뮤니티의 해체는 각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나아가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렇듯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내에서는 ‘지역’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역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성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성소수자 운동에서 그런 지역운동을 캐치한 건 조금 늦었던 것”(한채윤/여/43). 2008년부터 마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시민단체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활동가는 지역에 기반을 둔 운동들에 주목하며 지역운동이 “성소수자 운동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냐”(한채윤/여/43)는 기대를 가지고 마포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던 중 관심 받게 된 사례가 있는데, 2006년 9월 개설된 마포·용산·서대문구의 레즈비언들의 지역 커뮤니티인 <마용서>가 그것이다. ‘마포·용산·서대문’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 지어진 마용서는 기존의 일회적인 만남과 달리 동네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레즈비언 친구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기존의 친목 모임들이 주로 연애를 기반으로 했다면, 마용서의 경우는 연애보다는 “편한 고등학교 친구들” 혹은 “자매들” 같은 관계를 다지는 것을 위주로 한다. 마용서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향”하는 성격은 “집병개”라는 형태의 모임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편안한 복장으로 만나서 “서로가 가족이 되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주로 부모형제와 같은 혈연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취생활을 하는 마용서의 회원들은 비록 혈연관계는 없으나 동일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연대감을 공유하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자 한다.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혼자 사는 이가 집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도 이러한 가족의 역할이다. 서로에게 ‘가족’

이 되어주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뿐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써 혼자 사는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편의시설이나 부동산 등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며 각자 취향에 맞는 발전적인 소모임도 시도하고 있다. 마용서는 이러한 모임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레즈비언 여성들끼리 모여서 “건물을 하나 지어” “우정을 유지하며 한 동네에서 늙어가고 싶은 마음”, 즉 “마용서 실버타운”의 건설을 상상한다.<sup>9)</sup> 많은 경우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은 “가족”에 대한 거부, 친족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으로 묘사되곤 했으나, 퀴어 커뮤니티에서의 이러한 우정에서 비롯된 친밀한 관계는 “유사친족(fictive kinship)”의 예시로서 간주될 수 있다(Weston 1991).

마용서의 활동은 비록 적극적인 대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각각의 회원들이 스스로를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퀴어로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용서의 활동 지역이 레즈비언 사이에서 거점 지역으로 일컬어지던 ‘홍대·신촌’과 겹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마포 지역이 어떠한 면에서 퀴어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 5. 퀴어 공간으로서의 마포구의 등장 배경

### 1) 상상된 영토 ‘마포’

마포구는 서울 중서부 한강 북쪽 연안에 위치하여 동쪽은 중구의

---

9) <LGBT 인권 포럼 자료집>(2009년).

남부 및 용산구의 서부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신촌로 및 수색로를 경계로 서대문구 및 은평구와 인접하고 있다. 또한 남쪽은 한강에 면하고 영등포구 및 강서구와 한강 중간선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퀴어 주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으로서 일상적으로 ‘마포’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만, 퀴어들의 마포는 이러한 서울시 행정단위로서의 마포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마포구에서도 퀴어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범 홍대권” 즉 홍익대학교 입구 및 인근의 합정동, 망원동과 같은 곳이다(최동미/여/43). 심지어 마포의 범위를 “홍대 인근, 망원, 합정, 신촌 이정도? 신촌에서 이대까지”라고 설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퀴어와 인연이 깊은 지역이지만 엄연히 말하면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이대 지역을 ‘마포’의 범위에 포함했던 한 면담자는 오히려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속된 공덕동은 배제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냥 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것 같애. 망원동. 공덕 가서 살라고 하면 난 싫어. 빌딩도 엄청 많고 거기는 그냥 회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살겠지”(이민정/여/31). 퀴어 주민들이 평소 ‘우리 동네’로 생각하는 마포에는 아파트와 고층건물이 들어선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화된 시큐리티 시스템에 의하여 안전함을 보장받는 공덕동의 아파트 주민들은 퀴어 주민들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이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주거지를 재산으로 연결 짓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공덕역은 삼성 래미안, 롯데 캐슬 있는 곳인데 굳이 필요할까? 개네들은 마포에 성적소수자 살고 있는 거 알면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야”. 이는 마포구청의 호모포비아적 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는 회의에서 유동민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시위 장소로 정하지는 의견에 대한 어느 마레연 회원의 효력 있는 반박이었다.

즉 퀴어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포’는 지도상의 경계 지어진 ‘서울시 마포구’라기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상상된 영토이다. 베네딕트 앤더슨

(앤더슨 2007)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포의 쿼어 주민’은 상상된 공동체로서 서로간의 친교(communion)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자치적 장소를 향유하고자 하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쿼어 동네 ‘마포’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관념적인 것만은 아니다. 상상이라는 실체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Rose 1990, 발렌타인 2009: 164 재인용). 따라서 어떤 것이 마포를 쿼어의 장소로 구성하는 배경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저렴한 지가와 편리한 교통

예로부터 포구문화가 번성하였던 마포 지역은 현재도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6호선, 경의선이 지나가며 최근에는 공항철도가 개설되어 인천 지역 및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도 확보되었다. 또한 내부 순환로, 자유로, 강변북로, 그리고 강남·북을 잇는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가양대교 등이 있어 도로에서의 이동도 용이하다. 또한 마포구는 도심과 가까우면서 도심보다 지가가 저렴해서 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였다(이지혜 2010: 85). 주거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인 만큼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들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망원동, 합정동, 상암동, 성산동 일대는 과거로부터 주요 침수 지역으로, 빈번한 수해를 겪은 바 있다(Ibid.). 2007년 무렵 홍익대학교 주변의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간 저평가 받았던 망원동, 합정동, 동교동, 연남동 등의 임대료도 비교적 많이 오른 상태이지만,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이들에게 “되게 좀 못사는 동네”로 인식되고 있다(최동미/여/43). 이 지역의 저렴했던 임대료는 편리한 교통편과 함께 쿼어 주민들이 거주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인근 대학가에서 “소위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 있던” 그리고 그곳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을 흡인하는 조건이 되었다(양승연/여/

43).

마포구의 임대료가 크게 오르기 전에 이사 왔던 면담자들은 임대료 및 통학 혹은 통근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선택한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특히 임대료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늘날 주거 문제는 거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비혼 여성에게는 더욱 절박한 문제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여성이 혼자의 힘으로 목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을 계기로 부모로부터의 지원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가 용이한 이성애 부부와 달리, 결혼 제도로부터 벗어나 있는 동성 커플의 경우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료는 독립생활을 하는 퀴어들에게 있어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종자돈이라는 걸 마련하잖아요. 전세금을 부모님이 대주거나 그러는데, 동성커플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둘이 합쳐 전셋집을 얻어서 살기보다는 둘이 돈을 합쳐 월세를 내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월세도 워낙 비싸서, 요즘엔”(조윤주/여/36).

그런데 마포의 이러한 입지 조건은 또한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부상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단체들이 마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굵직한 단체가 있는 종로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20여 개인 것에 비해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두 배가 넘는 50여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체들이 마포구로 몰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퀴어 주민들이 주거지로써 선택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업무의 성격상 국회를 자주 오가야 하는 시민단체들은 마포로 옮기고 나서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게 되었으며, 최근 망원동 등의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와 비교하면 저렴하다.

마포구로 이동한 단체들 중에는 퀴어 및 여성주의와 관련되는 단체들도 포함되었다. 2006년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이 지속적으로 마포에 자리 잡았으며, 2013년 최근에는 본래 충정로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동성애자인권연대도 마포로 이사했다. 이들 단체는 마포구에서도 홍대 입구 및 합정동, 성산동 등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퀴어 주민들이 ‘우리 동네’로 인식하는 범위와 일치하고 있다. 사실상 단체를 만들 때 어느 지역에서 사무실을 내고 활동할지에 대한 고려는 임대료와 교통편과 같은 입지조건 외에 단체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하여 연대할 수 있는 단체들이 더욱 집결하게 되었다는 점은 마포를 “새로운 기류가 흐르는 곳”(한채윤/여/43)으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 3) ‘홍대 로망’과 새로운 기류의 형성

“처음에 집을 구하고 싶을 때 조건이, 그런 건 좀 있었어요. 홍대에 대한 로망”(조윤주/여/36). “우연히 제일 맞는 집이 성산동 쪽에 나왔고, 마침 또 잘 된 거죠. 원래, 좋아하긴 했어요 야, 그럼 이제 우리 홍티즌인 거냐고 막 이러면서”(서유경/여/36). 한 커플은 2006년에 함께 살기로 하고 집을 알아보았을 때 임대료 및 직장과의 접근성 때문에 성산동을 선택했다고 하면서도 내심 간직했던 “홍대에 대한 로망”도 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작용했음을 고백했다. 또한 2010년 마포구 합정동으로 이성한 면담자는 당시 합정동의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쪽을 알아보았다고 했다. “한창 비싸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로망이, 로망인데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에 살고 있고, 다른 데로 굳이 구해야겠다는 생각이…”(김선영/여/36). 홍대 지역은 레즈비언 바, 클럽 등이 있는 곳이며 퀴어 문화 관련 행사



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여성 퀴어들 사이에서 소위 ‘메카’의 위상을 지닌 곳이다. 그런데 레즈비언 바의 존재가 여성 퀴어들로 하여금 홍대를 비롯한 마포를 선호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L바나 클럽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다른 문화적으로 그런 게…”(서유경/여/36). “사실 레즈비언 바라고 하지만 몇 개 안 되고…옛날에는 주구장창 갔지만, 레즈바가 특별히 더 재미있거나 다양하지 않으니까. 사실 시끄러워서 안 가거든요”(양승연/여/43). 게이 바와 달리 수가 적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레즈비언 바는 30-40대 여성들에게는 “시끄러워서” 안 가게 되는 곳이며, 이러한 유흥보다는 홍대 자체에 매력을 느낀다는 답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홍대라는 장소에 품고 있는 ‘로망’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1970년대까지 홍대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풍경의 주거 지역이었으며, 1990년대 전반까지는 평범한 대학가 이상의 경관을 지니지 못했고, 오히려 인근의 신촌 및 이대 앞의 명성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다. 1980년대 말 홍익대학교가 미술대학 특성 정책을 발전시키면서, 이는 현재 홍대 앞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화에 편승하기 위한 미술 입시학원이 홍대 앞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던 재학생들은 대학 주변에 작업실을 만들어 지속적인 작업 활동을 했다. 따라서 홍대 주변에는 미술 학원과 작업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예술 관련 서점과 화방 등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장소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젊은 예술가들은 작업실을 바나 카페로 개조해 영업하는 등 상업 지역도 미술 중심의 공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신촌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신촌 일대의 라이브카페들이 홍대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홍대 앞의 라이브클럽 및 인디밴드가 주목을 받으며 홍대 지역에는 점차 공연과 퍼포먼스, 전시 등의 예술 활동을 위한 상업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댄스 클럽 문화가 확대되면서 홍대 지역의 유동인구가 급증하

였고 각종 상업 시설의 확대가 가속화되어 오늘날과 같은 경관을 이루게 되었다(옥은실 2009; 김나이 2011).

1990년대 후반에 주로 신촌에 집중되어 있었던 레즈비언 바들이 점차 홍대로 이동하게 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있다. 비록 국내 최초의 레즈비언 바로 알려진 레스보스가 마포에서 개업을 했으나, 1990년대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동성애 및 페미니즘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관련되어 레즈비언 바들은 신촌 상권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홍대 지역의 상권이 점차 떠오르면서 신촌 상권이 다소 침체되었고, 신촌에 있었던 레즈비언 바들도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2000년 즈음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었다. 본래 신촌에서 핵심적인 레즈비언 바였던 라브리스의 업주는 잠시 가게를 쉬었다가 홍대 지역에 다시 개업했고, 이는 홍대 지역 최초의 레즈비언 바가 되었다. 당시에는 “예술, 음악 하는 사람들 특화지역처럼 느껴졌던” 곳이었지만, 마치 홍대 지역으로 상권이 이동하는 흐름을 미리 읽은 듯 라브리스의 업주는 다시 바를 개업할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홍대 지역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다양한 사람과 클럽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홍대 문화’에 레즈비언 문화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김희연 2004: 43). 라브리스의 존재는 홍대 등지에 레즈비언 바가 밀집하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형 바인 라브리스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면서 그 주변으로 작은 바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라브리스의 업주가 말했던 ‘홍대 문화’란 단순히 홍대 지역의 상권이 성장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예술적이면서도 자유롭고 비주류적인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이끌었고, 또한 사회의 소수자에 속하는 쿼어들에게도 이러한 분위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홍대 앞을 거닐다 보면 다른 곳과 달리 독특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과감한 색상의 염색이나 타투, 피어

싱 등도 홍대 앞에서는 수용되는 분위기이며, 오히려 개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양한 옷차림이 허용된다는 점은 한편 퀴어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사회에서 규정하는 젠더 역할에 거부감을 느끼는 부치<sup>10)</sup> 여성이나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의 경우 신체적인 성과 옷차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시선을 받기 쉽지만, 홍대 앞에서는 개성으로 존중되며 독특한 사람을 배척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기에 그러한 시선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홍대에서는 뭘 해도 수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연분홍색 옷을 입어도 아, 이건 홍대니까 가능해,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느낌…”(최동미/여/43). 일반적인 40대 여성들과 달리 짧은 헤어스타일과 다소 남자 같은 옷차림을 하는 한 면담자는 홍대 지역에서는 일을 할 때 옷차림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특한 옷을 입어도 “오, 역시 홍대는 달라”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듣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업 환경에서는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옷차림 등을 했을 때 더욱 일탈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홍대 지역에서는 “홍대니까” 그것이 개성으로써 허용된다. 즉 퀴어들에게 있어 ‘로망’을 품게 한 것은 레즈비언 바의 존재 여부 자체보다는, 홍대 지역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분위기이다.

한시적인 만남을 넘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소수자 정체성을 발현하고 이와 관련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여성 퀴어들은 “많이 산다더라”와 같은 입소문을 듣고 마포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미 여성주의 및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많이 옮겨왔다는 말이 들려올 뿐 아니라, 민중의 집이 건립되고자 기금이 조성되

10) 부치(butch)는 외모와 말투, 행동 등이 남성스러운 레즈비언을 지칭하는 말로, 반대 말은 펌(femme)이다.

“부치”, 성적소수자사전

[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http://ksc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2015년 1월 11일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2-2004

고 있다는 소식 또한 새로운 기류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마포에 이사를 오고 나서 민중의 집의 설립을 지켜보았고 또한 민중의 집 회원이기도 한 어느 커플은 이에 대하여 “이 동네는 뭐가 돼도 될 동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미 마포에서는 이전부터 1994년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1999년 생활협동조합, 성미산 훼손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를 결성하는 등 지역 주민들 간의 다양한 공동 지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정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문화 공유 및 증진, 소외된 사람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현시키겠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 ‘마포 FM’이 설립되기도 했다. 성미산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는 시민사회에 지역 단위의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특히 마포 FM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프로그램 중에 레즈비언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인 〈L 양장점〉과 비혼 페미니스트 공동체 라디오 방송인 〈야성의 꽃다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L 양장점〉의 제작팀인 ‘레주파’는 그간 미디어에서 소외되어온 레즈비언 여성을 위한 방송을 진행하지는 목적으로 방송을 만들었으며, ‘L 양장점’이라는 이름은 레즈비언을 위한 맞춤 방송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지어진 것이다. 〈야성의 꽃다방〉은 기존 매체들이 비혼 여성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방송이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생각 아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라디오 방송들은 시민단체만큼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지역 내의 의미 있는 커뮤니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듯 시민단체 및 지역 내 소규모 공동체들의 집중은 이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체 활동가 혹은 단체의 목표를 지지하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에서 주최하거나 혹은 단체를 통해 알려진 소모임 등에서 친해지면서 기존에 마포에 살고 있던 이들이 이사를 권유하기도 한다. 이렇게 동네 친구가 되면서 함께 집을 오가며 밥을 먹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공통의 가치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실험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여성주의 스윙댄스 동호회 ‘스윙 시스터즈’는 리더와 팔로워가 각기 남성과 여성으로 정해져 있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여성들이 자유롭게 포지션을 정해서 춤을 출 수 있는 동호회이다. 또한 농구 모임 ‘자신만만 시스터즈’는 여성주의 단체들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논의 및 자기방어 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듯 공통의 문제의식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단체들이 모여 있다는 점,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류를 타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마포는 새로운 급진적인 정치가 시도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6. 퀴어 마을 만들기

### 1) 유권자로서의 퀴어

카스텔(Castells)은 도시에서의 동성애 근린 지구의 창조에 있어서 게이 남성들과 레즈비언 여성들이 차이를 나타내며, 남성들이 지배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반면 여성들은 영토에 대한 열망보다는 네트워크와 관계에 더욱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레즈비언들은 “제도적인 권력의 통제보다도 가치의 혁명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리적 기반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Castells 1983:

140). 이해와 욕구, 가치에 대한 젠더의 차이를 주장하는 카스텔에 대하여, 아들러와 브레너(Adler and Brenner)는 레즈비언이 이성애자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비교할 때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남성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Adler and Brenner 1992). 즉 공간의 점유 여부는 가치의 차이이기보다는 젠더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를 여성들의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재라고 하기는 힘들다.

성적소수자이며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즉 ‘정상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들 자신을 위한 공간을 점유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미만의 비혼 여성은 국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서 제한되는 등 복지는 여전히 정상가족 중심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성에도 작용한다. “얼마 전에 우리 오빠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집을 사주더라”, “야, 결혼 그거 할 만하네”. 비록 과거에는 임대료가 저렴하였지만, 점차 마포 지역의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정착할 곳 없음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는 퀴어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농담이 나오기도 한다. 오늘날 주택난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독립 의례를 거친 이성애 부부는 부모로부터 목돈을 지원받는 방법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간혹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둘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딸이 곧 결혼을 할 나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한 부모가 미리 결혼자금을 전세금으로 주는 경우이다.

결혼을 완전한 시민이 되는 관문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비혼 남성 또한 기혼 남성과 비교하여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성의 고위직 승진은

남성에 비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같은 비혼이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달라진다. “게이들은 별로 걱정이 안돼요. 찾는 금액이 분명히 다르거든요”(최동미/여/43). 마포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퀴어 손님들을 종종 상대하는 면담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일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퀴어 여성들의 경제적인 입지는 불안정하다. 한 예로 대기업에 다니는 그녀의 친구는 점차 나이가 들수록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들어 하청업체로부터 “뒤틀든 받아서 챙겨 놓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라는 농담을 한다고 했다. “술 한 잔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여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최동미/여/43). 남성 생계부양자와 가족을 이루지 않은 퀴어 여성은 더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입지에 있게 된다. 같은 성적소수자 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소수자의 위치에 있으며, 일상적인 차원에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마포의 퀴어 주민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적소수자로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2010년 3월, 여성주의 및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에서 활동하거나 활동을 지지하는 퀴어 주민 여섯 명은 한 커플의 집에서 모임을 갖다가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 정말 마포에 많이 살잖아”라는 말이 농담처럼 나왔고 이는 “그럼 진짜로 해보자”로 마무리되었다(이민정/여/31).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적소수자 또한 유권자임을 드러내며 성적소수자의 입장을 담은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2008년 총선 때 최현숙 선본에서 일했던 이들이 참여하여 당시에 성적소수자의 정치에 대하여 고민했던 점들을 지속하고자 했다. 그런데 퀴어 주민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우리 정말 마포에 많이 살잖아”라는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마포에 사는 퀴어 주민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했다. 이 여섯 명은 즉시 주변에 살고 있는 퀴

어 인맥의 목록을 작성해보았고 그 수는 100명을 훌쩍 넘겨 “역시 마포는 변태들의 동네였다”(유지원/여/31)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때 정리된 목록을 통해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전신인 ‘마포레인보우유권자연대’가 구성되었다.

처음 마레연을 결성한 사람들이 ‘당번’이 되어 모임을 주도하며, 마레연의 회원들은 퀴어가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각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질의서를 받은 후보들 중 일부는 성적소수자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었고, 마레연 회원들과 질의시간을 가진 후보도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도 100명이 넘는 퀴어 네트워크가 조직된 것을 이대로 해소하기에는 아깝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마포레인보우유권자연대’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로 전환하여 지역에서의 친목 모임 및 일상에서의 성적소수자 정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후 2012년 4월 11일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마레연은 ‘유권자연대’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어 ‘보트피플 정치토크쇼 & 유권자 파티’를 진행하였다. ‘보트피플’이라는 명칭은 중의적인 표현이다.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도는 난민인 보트피플(boat people)처럼 재개발과 높은 집값에 떠밀려 정주하지 못하고 서울을 떠도는 이들의 처지를 비유한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트피플(vote people)’ 즉 이들 또한 유권자이며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보트피플’ 또한 마레연 회원들을 비롯하여 성적소수자, 독립생활자, 비혼 여성들이 모여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고 후보들을 초청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고 유권자로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였다.

마레연의 이러한 활동들은 ‘마포에 퀴어가 많이 산다’는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으며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퀴어 정체성이 단지 사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로서 입장을 가지고 제도정치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사건이었다.

## 2) 마포 주민으로서의 퀴어

마포의 퀴어 주민들이 마레연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동네에 대한 애정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공간을 가지고”(유지원/여/31)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 동네 친구들”(서유경/여/36)이 있는 곳이기에 마포는 퀴어 주민들에게 있어 친구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룰 기반이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주민연대로 전환한 뒤 마레연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내 퀴어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마포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마레연을 알게 되어 찾아오는 이들도 있어, 지역 내 퀴어뿐 아니라 수도권 각지에 살고 있는 퀴어들을 불러들이는 마레연의 역할로 인해 기존에 마포가 지닌 ‘퀴어 동네’라는 상징성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밥을 지어 먹는 ‘퀴어 밥상’은 마레연이 운영되는 데 가장 바탕이 되는 정기적인 모임이다. 이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주말에 끼니를 거르기 쉽기에 함께 밥을 먹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장소는 마포 지역에 위치한 단체의 공간을 대관하여 마련한다. 퀴어 밥상은 편한 분위기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입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소개를 할 때 회원들은 주로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 사는 ○○입니다”와 같이 마포 주민이거나 마포 지역을 자주 찾는 사람임을 밝히며, 이러한 자기소개의 시간은 마포가 퀴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을 재확인하게 한다. 이로 인해 종종 다른 지역에 사는 회원들은 “나도 마포에 살고 싶다”는 반응을 하기도 하며,

퀴어 밥상에서는 마포 내 월세·전세 가격이나 누군가가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소식 등 집에 관한 정보가 오가기도 한다. 즉 새로운 퀴어 주민을 유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대화는 퀴어 동네로서의 마포라는 장소성을 재강화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모임 외에도, 함께 동네에서 취미생활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주제에 따른 소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전거 타기, 서로의 부엌을 공유하며 함께 밑반찬 만들기, 각종 행사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모임 등은 친목을 도모하고 동네의 소식을 공유하는 장이 된다. 또한 때때로 동네에서 목격한 퀴어에 대한 이야기는 지역과 퀴어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구성해가는 기능을 한다. 마레연이 처음 결성되었을 때 초기 회원들을 중심으로 퀴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마포 내 퀴어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에 속하지 않은 퀴어들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은 이 명제가 사실이라는 데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다. 이를테면 동네 치킨집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다가 옷차림과 분위기 등에서 퀴어라는 것이 감지되는 사람을 볼 때 “저기 지나가는 사람, 이쪽(퀴어)이네”, “역시 이 동네는 퀴어가 많긴 많이”와 같은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근래에 이용했던 지역의 가게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다가 “저기 ○○가 부치던데?”, “응 나도 그 소문 듣고 가봤는데 보고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아…”와 같은 소문이 나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회원들은 마포가 퀴어 동네라는 데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된다.

특히 레즈비언의 유흥의 장소인 흥대와 주거지인 합정동, 망원동 일대를 운행하는 마포 09번 버스와 마포 16번 버스는 속칭 “설 새 없이 게이이다<sup>11)</sup>가 돌아가는 곳”(유지원/여/31)이다. 이 버스들은 퀴어들이 즐겨 찾는 장소를 오가는 버스라는 뜻에서 ‘퀴어 버스’로 통하기도 한다.

---

11) 이는 게이(gay)와 레이더(radar)의 합성어이며, 성적소수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다.

마레연에서는 다소 암시적인 광고 문구와 성적소수자를 상징하는 조그마한 무지개 표시를 사용하여 마을버스에 광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지역에 조용히 숨어 살고 있던 퀴어들이 마레연의 존재를 알게 되어 보다 마레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을 기대했다. 광고는 2011년 6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7대의 마을버스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성적소수자에 대하여 무지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으나 광고를 접한 퀴어들로 하여금 내밀한 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이성애가 전제된 일상 공간에 ‘퀴어’를 드러냄으로써 내밀한 균열을 일으키는 시도이기도 했다.

지역 내 이슈였던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저지 투쟁에 대한 마레연의 참여는 이러한 드러냄을 보다 구체화하는 실천이었다. 퀴어 법상을 위한 장을 볼 때도 기업형 마트보다는 망원시장을 이용하는 마레연은 2012년 합정 홈플러스 입점반대 문화제에 참여하고 마레연의 이름으로 홈플러스 입점 철회지지 현수막을 거는 등 지역 공동의 문제의식에 협력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성장에 있던 시장의 상인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인들 또한 마포 지역 내 퀴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마레연의 회원들과 만났던 한 상인은 “여자들만 가는 그런 데가 있다고 알고 있다”, “여자들끼리 많이 다니는 거 같다”고 하였다(김선영/여/36).

사실상 마포에 퀴어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퀴어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소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마포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2013년 1월, 매년 마포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단체 신년회에서 어느 이성애자 부부는 마레연이 가져간 유인물을 보고서 “마포FM에서도 뭔가 이런 언니들이 하는 그런 방송 있지 않아요?”라며 반응을 보였다(김선영/여/36).

그러나 퀴어의 존재를 지역 내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시도는 그간 묵인되어왔던 이성애주의를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버스 광고

의 보다 확장된 형태로서 지역 광고 게시대에 마레연을 알리는 광고 현수막을 걸자는 프로젝트, 일명 ‘현수막 대작전’은 마포구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지금 이곳을 지나서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현수막의 문구를 마포구청 측에서는 “어른들이 불편해하신다”, “청소년에게 안 좋다”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게재를 거부했다. 또한 마포구청은 ‘여기’라는 글자를 가리키는 손가락 그림을 ‘혐오스럽다’며 문제 삼았는데, 퀴어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성적소수자가 ‘여기’, 즉 ‘마포구’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며 일반 사람들이 성적소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불편해하신다”는 말을 들었던 퀴어 주민들은 사실상 “어른” 즉 혼인을 통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에게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마포의 지역공동체에서 퀴어 주민이 소외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어느 40대 레즈비언 여성은 지역공동체 모임에서 ‘결혼하셨으면 남편도 나오시라 해라,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남자가 많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 공동육아를 통한 자녀양육을 시작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마을’로 확장하였던 특성상 기존의 지역공동체는 가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는 동성애라는 성적지향 혹은 비혼이라는 삶의 방식에 대한 고려를 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더욱이 공동체에 남편의 역할을 하는 남성이 필요하다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여성과 남성에게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배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간에 대한 정당한 확보에의 충동은 급진적 투쟁의 상상과 운동을 불러일으킨다”(Munt 1998: 3, 발렌타인 2009: 391 재인용). 마포의 퀴어 주민들은 이러한 사회적 배제와 비가시성에 대하여 사회적 소속을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마포에 거주하지 않는 퀴어들도 참여하여 마포구청에 민원전화 넣기, 단체 차원에

서 항의서 보내기, 마포구청 앞에서 릴레이 일인시위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은평구, 성북구 등 다른 지역 및 대학 성적소수자 동아리 등에서 마레연을 지지하며 퀴어의 존재를 드러내는 현수막을 거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성애적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공개적으로 퀴어 섹슈얼리티를 수행하는 운동은 퀴어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성적소수자 가시화의 본격화가 일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마포의 ‘퀴어 동네’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후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기존의 마포 지역공동체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활동가가 마포 민중의 집 대표로 선출되었고 이로써 민중의 집이 포용하려고 하는 민중에 성적소수자가 포함된다는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성미산마을에서는 현수막 이슈로 인하여 지역 내 퀴어 주민들의 존재를 보다 인지하게 되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사회적인 위치 및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로 인하여 그동안 같은 지역 내에서도 마레연을 중심으로 한 퀴어 주민들은 기존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주민들과 접점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성적소수자 가시화 운동은 지역 내 퀴어들의 능동적인 실천을 알리게 되었다. 이제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내부에서도 기존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마포가 퀴어의 영토라는 것이 퀴어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포 지역을 기반으로 퀴어 정치의 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징조로 여겨진다.

## 7. 결론

2013년 제 14회 퀴어문화축제는 “The Queer: 우리가 있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개최되었다. 이전의 퀴어문화축제가 주로 종로에서 개최되었으나, 퀴어의 삶의 공간으로서, 정치적 세력화의 중심지로서 마포의 상징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으로서 퀴어들은 성적소수자 정체성이 어떤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이 되기 위한 자유의 문제임을 선언했다(Berlant and Freeman 1993: 198, 발렌타인 2009: 392 재인용). 본 논문은 공간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성적소수자의 정체성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러한 정체성을 지닌 이들의 일상적이고도 정치적인 실천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적소수자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레즈비언 여성들이 공간의 점유를 위하여 능동적인 실천을 꾀하였던 점에 주목하였다.

과거로부터 퀴어 문화는 특정 장소를 거점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공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업지구의 한계점을 넘어 공간을 새롭게 점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레즈비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마포 지역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마포는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편, 다양성이 허용되는 분위기에 의하여 일찍이 퀴어 여성들 사이에서 거주지로 선호되었으며,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 지역공동체 운동이 지속되어온 곳이다. 권력은 서울의 주변부인 마포 지역으로 퀴어들 및 이들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두서없이 정착하도록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 이들의 지역에서의 정착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실천은 성적소수자의 일상적 가시화 및

정치적 세력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시도가 되었다. 즉 권력의 작용에는 이미 저항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푸코 2004).

마포 내의 퀴어 및 비혼 여성 네트워크는 일상적인 삶에서 “그들만의 풍부한 내부의 세계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유권자로서 행동하며 “제도적인 권력의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내 성적소수자의 존재를 공공장소에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들은 기존 사회의 이성애적 헤게모니를 폭로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나아가 ‘퀴어의 영토’라는 상징성을 마포 지역에 부여하는 실천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그간 비가시화되었던 소수자 정체성이 물리적인 공간을 기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시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15일, 논문심사일: 2014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7일

## 참고문헌

### 강오름

2013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현대 한국의 성적소수자와 공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이

2011 “Anchor 문화시설 도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마포디자인특정개발진흥지구(홍대지역)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연

2004 “한국의 레즈비언 놀이문화 연구: 클럽과 바에서 드러나는 소수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

위논문.

린다 맥도웰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파주: 도서출판 한울.

미셸 푸코

2004 『성의 역사 1: 얇의 의지』, 이규현 역, 파주: 나남출판.

박인권 · 이선영

2012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공간과사회』 42: 5-50.

박지환

2005 “분당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계급-공간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8(1): 83-123.

베네딕트 앤더슨

2007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흥숙 역, 파주: 나남출판.

서동진

2006 “성적소수자는 민중이다, 시민이다: 날 것의 삶과 정치적인 삶,” 『황해문화』 50: 377-386.

안숙영

2012 “젠더, 공간, 그리고 공간의 정치화: 시론 차원의 스케치,” 『여성학논집』 29(1): 157-183.

오승은

2012 “찰스 테일러의 다문화주의,” 『Homo Migrans』 5(6): 5-10.

옥은실

2009 “홍대앞 문화들의 변화에 대한 고찰: 1990년대 후반 이후 홍대앞 다시 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서진

2006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지혜

- 2010 “한강변 주거경관의 현대적 변천 과정: 마포진·용산진·한강진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 학위논문.

이해솔

- 1999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편, 『한국 여성 인권운동사』 서울: 도서출판 한울. pp. 359-403.

이현재

- 2008 “성적 타자(sexual other)가 인정되는 도시 공간을 위한 시론: 매춘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0: 1-26.

정규호

- 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2): 7-34.

제프리 워스

- 1994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채규형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조미나

- 2001 “사이버 공간에서 동성애자 집단의 소수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조성배

- 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질리언 로즈

-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정현주 역, 파주: 한길사.

질 발렌타인

- 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역, 서울: 논형.

주디스 버틀러

- 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파주: 문학동네.

한채운

2011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진보평론』 49: 100-128.

Adler, S. and Brenner, J.

1992 “Gender and Space: Lesbians and Gay Men in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24-34.

Aldrich, Robert

2004 “Homosexuality and the City: An Historical Overview,” *Urban Studies* 41(9): 1719-1737.

Appiah, K. A.

1994 “Identity, Authenticity, Survival: Multicultural Societies and Social Reproduction,” in A.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49-164.

Berlant, L. and Freeman, E.

1993 “Queer Nationality,” in M. Warner, ed., *Fear of a Queer Planet: Queer Politics and Social Theo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93-229.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stells, Manuel

1983 *The City and the Grassroot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ohnston, L. and Longhurst, R.

2010 *Space, Place, and Sex: Geographies of Sexualitie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Lawrence-zúñiga, D. and Low, S.

2003 “Locating Culture,” in D. Lawrence-zúñiga, and S. Low, eds.,  
*The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Locating Culture*,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p. 1-47.

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Munt, S.

1998 “The Lesbian Fliineur,” in D. Bell and G Valentine, eds.,  
*Mapping Desire: Geographies of Sexualities*, London: Routledge.  
pp. 104-114.

Plummer, K.(ed.)

1980 *The Making of the Modern Homosexual*, London: Hutchinson.

Rose, G.

1990 “Imagined Poplar in the 1920s: Contested Concepts of  
Communit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16: 425-37.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5-74.

Weston, K.

1991 *Families We Choose: Lesbians, Gays, Kinshi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자료〉

잡지

1998 4월 〈버디〉 2호, 도서출판 해울.

5월 〈버디〉 3호, 도서출판 해울.

웹진

2009 7월 28일 〈레인보우링〉 2호(<http://rainbowring.tistory.com/35>).

단체자료집

2009 〈LGBT 인권포럼자료집〉, 무지개행동네트워크.

심포지엄자료집

1999 이송희일,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불가능한 이유 5가지,”  
〈1999년 6월 한동협 1주년 기념식 심포지엄 자료〉(<http://my.dreamwiz.com/gayfics/mirror.htm>)

용어사전

성적소수자사전([http://ks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http://ks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Key concepts〉: space, sexual minority, queer, LGBT, local movement, politics

## “LGBT, We are Now Living Here”:

### Sexual Minority and Space in Contemporary Korea

Kang, Ohreum\*

The identity of sexual minorities is spatial essentially in that it is dependent on certain space. I examines the position that sexual minorities have in Korean society by tracing the process in which certain space is converted into ‘queer space’ through active agents’ performance.

Unlike gay men which have had their spatial area, it has not been long before lesbians tried to have their communities. The development NGO movement on local community has triggered the demand of regional movement of sexual minority rights groups. By the experience in the 2008 general election, lesbian activists becam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Mapo-gu as a queer town where everyday life was lived.

The reasons why Mapo-gu has become a queer region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Mapo was convenient for transportation and near to downtown, lesbian women who had low income have stayed

---

\* Master,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ere. Second, an atmosphere of freedom around Hong-Ik University, so-called ‘the yearning for Hong-Dae,’ has been also important for lesbian couples to move into Mapo area. This factor has facilitated strong networks among queer residents.

‘Union of Mapo Rainbow Residents(UMRR)’ has launched in these background. UMRR tried to strengthen a network of queers in Mapo and visualized the existence of queer. Their movement has called attention to the symbolism of Mapo as a queer area.

Local movement of sexual minorities in Mapo district is a good example in which the identity of sexual minorities becomes visible by inter-relationship with space.